

여수시, 전국 최초 '미래형 수산업' 대전환한다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등 안전관리 강화...소비 촉진 확대 AI 도입 통한 경쟁력 있는 미래형 첨단 양식 산업 육성

여수시가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대전환에 나섰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미래형 수산업 대전환을 위해 ▲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 ▲AI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양식산업 육성 ▲어촌 개방성 확대를 어촌소멸 위기 극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산업은 과거로부터 여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국제 해양 관광 휴양도시, 남해안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는 여수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에 따른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와 수산산업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자체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한다.

내년 말까지 자체 예산 54억원을 투입해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건립, 이를 통한 신속한 검사로 여수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앞서 시는 해수 방사능 감시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 1억원을 들여 어업지 도선에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해수 방사능 측정 결과는 주 1회 홈페이지와 주요 전자 게시판(459개소)에 공개해 지역 수산물 소비 불안감 해소에 힘쓰고 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132억원을 투입, 수산물 양륙과 선별, 위판, 배송 등 전 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 2개소를 올해 안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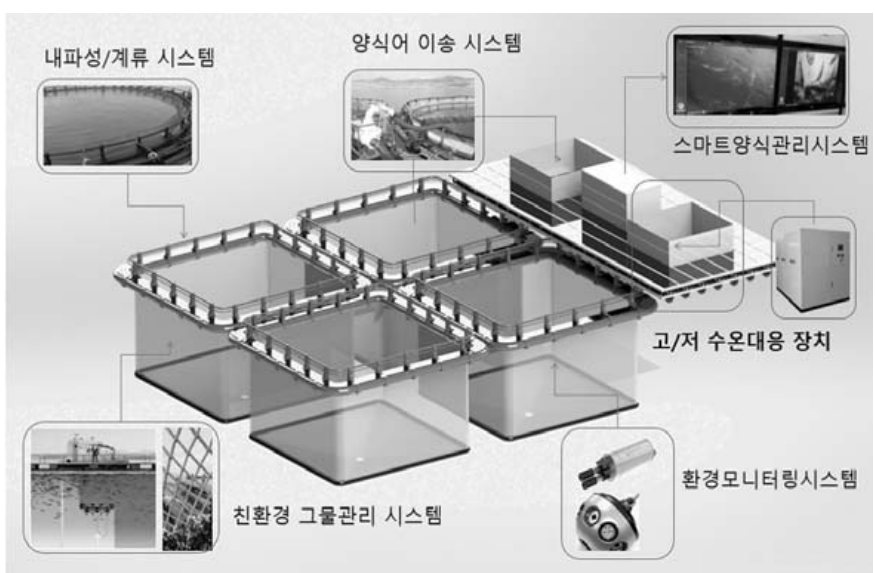
여수시가 전국 최초 미래형 수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안전센터의 조감 투시도(왼쪽)와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 모델(TESTBED) 조감도.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여수수산물 이미지 제고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직거래 장터 운영·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판촉 행사, 소가구를 위한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소포장제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미래 첨단 양식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도 바쁘다. 특히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AI를 해상 양식장에도 접목해 전국 최초 해상 ICT융합 스마트 양식모델 구현을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이며 시는 올해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열



여수시 제공

리는 해양수산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까지는 여수 특성에 맞는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 모델(TESTBED)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 모델에는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에서의 탈피 ▲인위적 수온조절과 자동사료급이 ▲환경 측정 및 자동제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집약적 첨단 스마트 친환경 양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기명 시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수산업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2030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진기자

장흥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프리미엄 김 생산 '탄력'

장흥군이 '2024 제2차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프리미엄 김 생산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은 총 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국 6개 시군이 경쟁을 벌인 결과 전국 최대의 친환경 양식장을 보유한 장흥군이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친환경 무산김을 생산하고 있다.

장흥 무산김은 염산과 같은 유·무기산을 쓰지 않는 친환경 김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착한김'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ASC-MS C 국제 친환경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 무산김 양식방법에 적합한 종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전국지자체 중 유일하게 특허출원한 김 종자 장흥 호초1·2·3호를 지



장흥군이 해양수산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선정돼 친환경 무산김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장흥무산김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 (장흥군 제공)

총 50억 예산 지원...김 생산·양식·가공·유통 친환경 김생산·자체 김 종자 개발 등 경쟁력 확보

난해 연밭부터 어민들에게 공급해 시험 양식에 들어갔다. 장흥 호초 1·2·3호는 성장 상태가 빠

르고 품질이 좋아 어업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타 지역에서 구입·

공급했던 김 사상제(종자)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 적합한 김 종자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 수출에 적합한 마린김 생산을 위해 김 가공공장 시설 개선과 김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흥=노형욱기자

광양 청년 자립 지원정책 '호응'

정장 대여·문화복지·주거비 지원 등 추진

광양시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청년지원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역 내 18세부터 45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인 '청년 감동 날개'를 운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 중이다.

대여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 후 신분증, 보증금 등을 지참해 광양청년꿈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여 물품은 남성은 ▲재킷, 바지, 셔츠, 벨트, 넥타이, 여성은 ▲재킷, 치마, 바지, 블라우스로 치수별로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지난 1개월간 20여명의 청년이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원

할한 자립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비 2만원을 지원하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올해 모집인원은 50명이다.

청년 사업가를 지원하는 '도심 빈집 포 활용 청년사업가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의지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 선발된 5명에게 인테리어비, 임차료 등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광양시는 청년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 청년 희망 디딤통 등 장시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광양=양홍렬기자



담양군 기획예산실-나주시 세무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추진

담양군은 25일 "정광선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송강정실에서 담양군 기획예산실과 나주시 세무과 공직자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발전에 노력하고자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기부는 한연덕 담양군 기획예산실장과 김미령 나주시 세무과장의 공직 동기 인연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약속했다.

0명이 각각 10만원씩 총 400만원을 기부했으며, 지역의 특색있는 담례품도 다양하게 제공받았다. 한연덕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상호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되돌아볼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담양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압도적인 성과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면서 담양군 기획예산실 직원 20명과 나주시 세무과 직원 2

귀농인 영농정착 '귀농닥터' 추진 곡성군, 기술·경영·마케팅 지원

곡성군은 25일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귀농닥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귀농닥터는 영농 초기의 귀농인이 지역 선도농업인에게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 노하우를 배워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인과 곡성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이 한 팀을 구성해 오는 29일까지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한 팀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과 중복이 불가하고, 귀농인과 선도농업인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인 경우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061-362-2371)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김영필기자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센터 건립 '속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20억 확보...내년 하반기 착공

고흥군은 25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스마트 복합센터 공모사업에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센터'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센터 공모사업은 중앙정

부와 지자체 간 협업 및 스마트 기술 적용 등을 통해 도로변에 휴식 공간을 제공해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문화, 관광 홍보 등이 가능한 사업이다.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센터 조

성사업'은 국도 27호선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 휴게소, 주차장, 수조차충전소, 전기차충전소, 특산물판매장, 다목적 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인근 유자 축제장, 유자 공원, 탐방로, 파크골프장 등과 연계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순천국도사무소와 협력해 2025년 하반기에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흥=최봉환기자

"보성벚꽃축제로 인생사진 남겨요"

오는 30일 군립백민미술관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

보성군은 25일 "오는 30일 군립백민미술관 일원에서 '제11회 보성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를 맞는 보성벚꽃축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문덕면 죽산리에서 죽산리 대원사까지 5.5km 왕벚나무 터널을 따라 개최된다. 축제는 문덕농약단의 풍물 공연과

지역예술인의 무대를 시작으로 기념식, 색소폰공연, 보성군립국악단 공연, 벚꽃 노래자랑 등이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왕벚꽃 터널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차량을 통제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왕벚나무 터널 입구부터 중간 지점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데크길은 만수위 주암도 경관과 벚꽃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산책코스다. 간마다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지역민이 운영하는 향토음식점과 특산물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행사장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부스 실명제와 합리적인 가격 표시로 방문객의 눈과 입이 즐거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임병연기자